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지부교섭 속보 07호

2020.06.29(월)

■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7차 지부교섭_제시안 없음]

파업 할테면 해봐라?

파업 전혀 두렵지 않다?

25일(목)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7차 지부교섭은 사측 교섭위원들의 조합원 무시 발언으로 가득찼다.

“중앙교섭도 결렬됐으니 지부교섭도 결렬될 거라고 판단했다.”

“조합이 결렬선언, 조정신청 일정 다 정해놓고 결렬을 못박아놓은 상황에서 제시안 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준비 안했다.”

사측은 애초에 7차 교섭에 참여하면서 당연히 결렬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시안을 준비조차 안했다. 그냥 결렬하고 다음 주는 교섭하지 말자는 식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 황당하다. 파업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 뜻인가?

오만한 사측, 조합원들이 우습나?

사측은 절대 노조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측이 보인 태도는 우리 조합원들을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다. 성의있는 제시안을 요구하는 노측 교섭위원들에게 당당하게 “제시안 없다”라고 말하는 사측 교섭위원들. 이미 2008년 지부교섭에서 합의된 회의 참여시간 보장을 좀 더 확대하자는 요구에 대해 ‘제시 없음’이라고 내놓고선 “2008년 합의 내용이 뭐죠?”라고 묻는

용기까지. 지금 사측은 이렇게 대충 교섭해도, 막 나가도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전엔 노조가 교섭 결렬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하면, 사측이 조금이라도 투쟁력을 약화시키려고 제시안 제출하면서 교섭을 더 해보자고 요구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파업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 사측이 먼저 나서서 어차피 결렬할거니 교섭하지 말자고 한다. 우리 조합원들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봤다.

성난 민심 보여주겠다!

김정태 지부장은 “중앙교섭 제시안이 없어서 지부교섭 제시안 못낸다는 건 동의 못한다. 제시안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정당한 노사문화인가? 어떻게 성난 민심을 보여줘야 사용자가 그런 소리 안할지 지부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까지 듣다.”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지부는 올해 만큼은 사업장 타격투쟁 보다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 사회체제 변화를 위한 투쟁을 준비했다. 그러나 사업장 타격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오만한 사측에게 우리의 성난 민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투쟁을 할 것이다.

7차 교섭 속기록

더 이상 조합원 우습게 보지마라!

노 : 제시안 없다고 들었다. 예전엔 노조가 결렬선언하고 파업 들어간다고 하면 사용자들이 파업효과 완화하려고 제시안 냈는데 요새는 안그런 것 같다. 노동개악이 너무 많이 돼서 사용자가 노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중앙교섭 제시안 없어서 지부교섭 제시안 없다는 것에 동의 못한다. 지부교섭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중앙교섭 평계대고 제시안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게 정당한 노사문화인가? 어떻게 성난 민심을 보여줘야 사용자가 그런 소리 안할지, 지부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까지 듈다.

지난교섭 제시안에 대해 몇가지 말하겠다. 특근, 연장, 야간수당이 줄어서 실질임금 삭감되고 있다. 삭감된 부분은 분명히 보충해야겠다. 공직취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라는 표현과 선출직에 한한다는 것도 빼야 한다. 해당자 처우는 별도 합의해도 저희별 전임임금에 준한다는 약속은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부, 저희 간부 시간할애는 제시안 없다고 했다. 2008년 지부교섭 합의한 내용에 KDK 빼고 나머지 회사는 다 참여했었다. 그 때 합의한 내용도 못지키겠다는 건지 묻겠다. 더 이상 우리 조합원 우습게 보는 발언 안했으면 좋겠다. 올해만큼은 사업장 타격투쟁 보다 코로나 위기에 대해 사회체제 변화 투쟁을 준비했는데 사업장 타격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오는 것 같다. 오늘 추가 제시안 마련해줄 것 요구한다.

사 : 코로나 백신 개발이 대량생산체제 갖추고 전세계 대상으로 하려면 빨라야 내년 말, 내후년까지 갈 것 같다. 우리나라 산업은 수출이 잘돼야 하는데 세계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안될 수 있다. 노사가 머리 맞대도 WIN-WIN은 없을 것 같다. 상호 잊지 않는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서 서로가 살아남아야 할 것 같다. 회사 제시안이 없어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다. 우리가

성의가 없고 조합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중앙교섭이 23일에 열렸는데, 교섭도 전에 미리 결렬선언 준비하고 조정 일정 잡는게 사용자에게도 들어가다보니 사용자도 23일 결렬을 못박은 상태에서 제시안 내는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부교섭도 중앙이 결렬됐으니 그렇지 않겠냐는 판단을 해서 준비를 못했다.

노 : 대정부 투쟁, 지역 투쟁들이 있다보니 교섭 관계만 놓고 결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쟁의권 발동하고 대처하는 과정이 있다. 과거엔 사용자들이 투쟁성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고 조정 들어가도 교섭하자고 하고 제시안을 냈다. 요샌 조정 전까지 임금 제시안 전혀 안낸다. 이게 정상적인 노사관계인가? 그동안 우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조합원을 우습게 보는 건지. 이후에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 사용자는 당연히 대책을 내놔야 하는거 아닌가?

사 : 중앙교섭을 지부에서 앞질러 가기 부담있다. 임금은 어느 정도 단협이 정리돼야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뒤로 간 것이다. 절대 조합을 무시하는게 아니다.

노 : 조합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조합원을 무시한다는 거다. 중앙교섭과 중복되는 요구안은 그렇다쳐도, 지부요구안에 대해서는 왜 못내나? 회의시간 시간할애는 2008년 합의안인데 그것도 거부하는건가? 이런 답변도 못하는게 조합원 무시하는거 아닌가?

사 : 개별 회사로 보면 부담이 안될 수 없다. 지금도 시간할애로 많이 빠지는데 어렵다는 말을 한거다.

노 : 오늘 당장 제시안 마련하기 어려우면 차기 교섭까지 준비해달라. 조합원이 만족할만한 내용이 나와야 회사가 말하는대로 템포조절이든 뛰든 할 것 아니나? 다음주 목요일까지 제시안 나오길 기대한다.